

섬세한 세경쌤의 한 장에 개념노트

학번 : _____ 이름 : _____

PART 주제	PART 14.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
PART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. - 질량에 따른 별의 종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. -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을 설명하고,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.
소단원 주제	02. 별의 탄생과 진화(2)
수업 학습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을 핵융합 반응과 내부 힘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. -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을 초거성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. -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종말 단계에 대해 구분 지어 설명할 수 있다.

수업 목차

오늘의 핵심 개념

PART 14.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

〈별의 탄생과 진화(2)〉

02. 별의 탄생과 진화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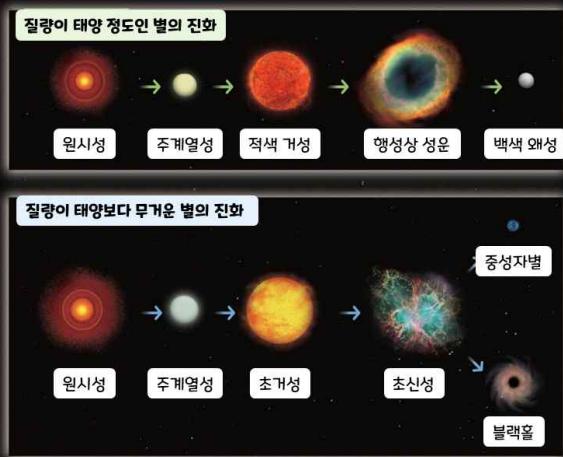
(1) 별의 진화 기본 정리

(2) 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(3) 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gg M_{\odot}$)

(4) 별의 진화 최종 정리

섬세한 세경쌤의 한 장에 개념노트

별의 진화 기본 정리



오늘 필요한 핵심 개념

- 별의 내부에 작용하는 2가지 힘
→ 중력(중심 방향), 내부 압력(바깥 방향)
- 중력 수축 : (중력 내부 압력)
→ 위치E 감소
→ 온도 (상승 / 하강)
- 수소 핵융합 반응 개시 온도
→ () K
- 핵융합 반응 : 막대한 에너지 생성
→ 내부 압력 (증가 / 감소)

<1>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

주계열성 단계의 종료, 준거성 단계의 시작

- 중심핵에서 ()가 모두 소진되면 주계열 단계 종료
→ 힘의 관계 : (내부 압력 중력) → () 중심핵 수축
- 더 이상 주계열성 단계가 아니고 준거성 단계로 명명
→ ()으로 진화하는 출발점!!
- 준거성에 도달하면 헬륨 중심핵(헬륨핵)은 중력 수축에 따라 온도 ()
- 중심핵을 감싸고 있는 외부층 중 수소 껍질에서도 이에 따라 온도 ()



적색 거성의 탄생(수소 껍질 연소 단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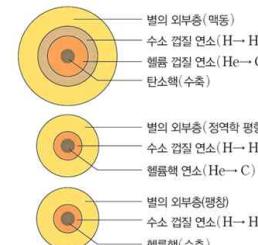
- 수소 껍질의 온도가 1,000만K에 도달하면 수소 껍질에서 () 개시
→ 수소 껍질 연소로 별의 외부층에 에너지 대량 공급 → 별의 외부층이 급격히 ()
- 주계열성 단계일 때에 비해 반지름 (), 표면 온도 (), 광도 ()하여 적색 거성 탄생

<2>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

적색 거성의 진화(헬륨핵 연소 단계)

- 헬륨 중심핵의 온도가 중력 수축에 따라 ()K에 도달
→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개시 [간단한 화학식: $3He \rightarrow C + E$]



적색 거성의 진화(탄소핵 수축 단계)

- 별칭 : Double Shell Burning 단계
- 중심핵에서 ()이 모두 소진되면 헬륨핵 연소 단계 종료
→ 힘의 관계 : (내부 압력 중력) → () 중심핵 수축
- 중심핵 주변 헬륨 껍질도 열에너지 전달에 따라 온도 ()
- 헬륨 껍질의 온도가 1억K에 도달하면 헬륨 껍질에서 () 개시
-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에서 동시에 핵융합 반응 발생 (Double Shell Burning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)
- 탄소핵은 계속 수축하며 열에너지 ↑, But 질량 부족으로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온도에는 도달 X
- 따라서 $M_{\star} \approx M_{\odot}$ 의 질량을 갖는 주계열성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탄소(C)까지만 생성 가능

<3>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

행성상 성운

- 헬륨 껍질 연소의 특성에 따라 별의 외부층이 빠르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중심부에는 탄소핵, 주변에는 얇은 성운이 감싼 듯한 모양을 보이는 천체



〈헬륨 껍질 연소의 특성(열맥동)〉

- 헬륨의 핵융합 반응(3α 과정)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

【별의 팽창】 → [온도 감소] → [핵융합 반응 중지] → 【별의 수축】
→ [온도 증가] → [핵융합 반응 개시] → 【별의 팽창】 → ... 반복!!

백색 왜성

- 별의 외부층이 모두 방출되어 수축하는 탄소핵만 존재하는 천체
→ 계속된 중력 수축 → 반지름 (), 밀도 (), 온도 ()
-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는 주계열성의 마지막 진화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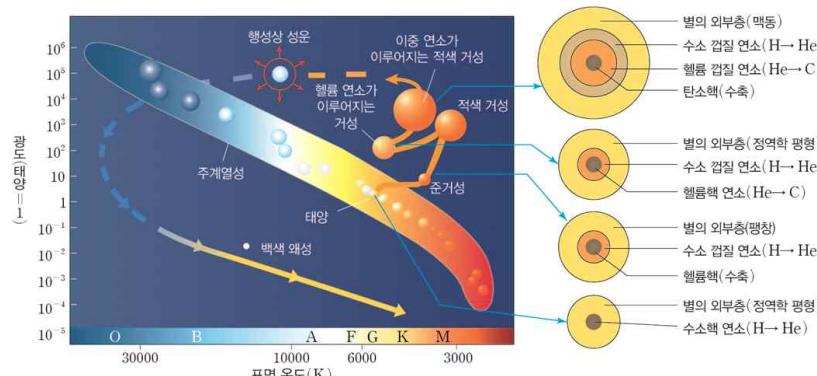


<4>

섬세한 세경쌤의 한 장에 개념노트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approx M_{\odot}$) : 주계열성 → 적색 거성 → 행성상 성운 → 백색 왜성



〈5〉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gg M_{\odot}$)

초신성 폭발

-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(Fe)까지만 생성 가능
- 철(Fe) 중심핵은 중력 수축에 따라 중심핵 밀도 점점 (상승 / 하강)
- 중심핵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하면 별은 급격히 붕괴, 외부층 폭발
- 엄청난 에너지 생성 → 광도가 매우 높아지고(은하에 버금), 철(Fe)보다 무거운 원소 합성 및 방출
- 폭발에 따른 충격파가 성간 물질을 압축하여 특정 공간에서의 별 탄생을 촉진하기도 함

중심핵의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

(※ 주의사항 : 주계열성 질량 ≠ 중심핵 질량)

- 중심핵 질량 : $1.4M_{\odot}$ 미만 → ()
- 중심핵 질량 : $1.4M_{\odot} \sim 3M_{\odot}$ → ()
- 중심핵 질량 : $3M_{\odot}$ 초과 → ()



〈7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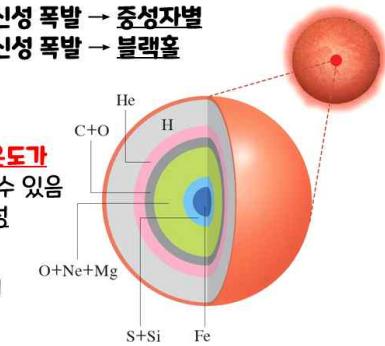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gg M_{\odot}$)

주계열성의 진화($M_{\star} \gg M_{\odot}$)

- 주계열성 질량(M_{\odot} 이상) : 주계열성 → 초거성 → 초신성 폭발 → 중성자별
- 주계열성 질량(M_{\odot} 이상) : 주계열성 → 초거성 → 초신성 폭발 → 블랙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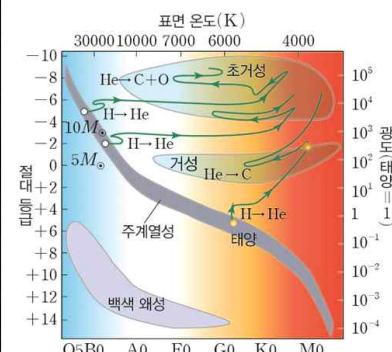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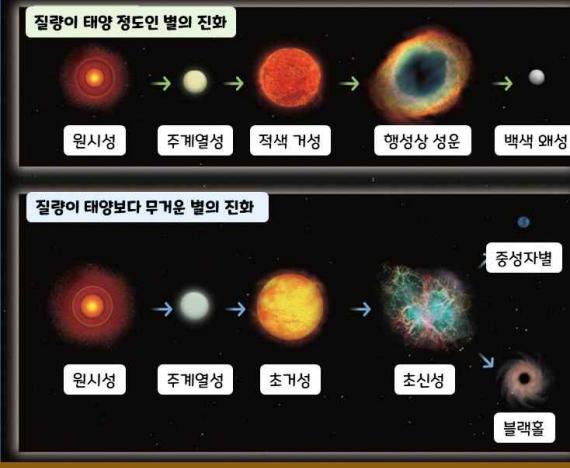
초거성 단계

-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**연료의 양이 충분**하므로 **중심핵의 온도가 계속 상승**하며 단순 거성이 아닌 **초거성 단계**로 진입할 수 있음
→ 중심핵과 껍질에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도 차곡차곡 생성
(ex. $H \rightarrow He \rightarrow C \rightarrow O \rightarrow Ne \rightarrow Mg \rightarrow S \rightarrow Si \dots$)
- 이로 인해 별은 **양파 껍질 모양의 내부 구조**를 가지게 되며 **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고 위치함**
- But, 핵융합 반응만으로는 **철(Fe) 까지만 생성 가능(★)**
(Why?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합성은 발열반응이 아닌 흡열반응 →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...?)



〈6〉

별의 진화 최종 정리



〈8〉